

손기정 선수 일장기 지운 독립운동가 송진우 선생 추모식 내일 개최

⌘ BBS NEWS | Ⓞ 승인 2023.05.07 10:40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한 고하(古下) 송진우 선생(1890~1945)의 탄생 133주년 및 서거 78주기 추모식이 오는 8일 오후 2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고 국가보훈처가 7일 밝혔습니다.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추모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전남 담양에서 출생한 고인은 1915년 중앙학교를 인수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줬으며 1919년에는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해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는 1927년에는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해 문맹퇴치 운동을 벌였고, 1936년 베를린올림픽 때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붙은 일장기를 지운 우승 사진을 게재해 총독부의 압력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1945년 광복 후 한국민주당을 조직해 활동하다가 암살당했으며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습니다.

